

# 브리프: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

평화협정은 최종적이면서 구속력있게 전시 무력 사용권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. 평화협정은 엄청난 후과를 치를 수 있는 한반도 핵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첫 단추다.

- 1.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한 것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위기를 부추겨왔다.**
  - a.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로 인해 우발적 또는 고의적인 긴장 상태가 발생해도 이를 수습할 안전장치가 없고, 신뢰와 소통의 결여로 안보가 저해된다. 만약 당장 전투가 벌어진다면, 재래식 전투 첫 날에 30만 명의 사망자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. 핵전쟁의 경우 사망자는 수백 만 명에 이를 것이다.
  - b.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로 인해 정부 자원이 군비로 전용되고,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.
- 2. 평화협정은 전시 무력사용권이 완전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, 신뢰 구축과 외교적 방법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.**
  - a. 국제법은 평시보다 전시 상황 하에서의 무력 사용에 더 관대하다. 한반도 전쟁 상태가 종식되면 무력 사용에 대한 제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.
  - b. 평화협정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전쟁의 최종 해결책으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당사국들의 의지가 필수적이다.
- 3. 평화협정은 공정하고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당사국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표현 방법이다.**
  - a. 평화협정과 달리 “종전 선언” 이나 불가침협정은 전쟁 상태를 종식시킨다고 단언할 수 없다. 이들이 제공하는 신뢰와 안전보장은 제한적이지만, 평화를 향한 정치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.
  - b. 국교 수립을 논의하는 관계 정상화 협정은 무력사용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. 그러나 관계정상화를 통해 당사국들이 평화상태를 인정한다는 의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.
- 4. 평화협정 체결에 미국, 남한, 북한이 포함되어야 한다.**
  - a. 미국은 한반도 내 무력 사용에 연루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. 미국의 참여에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다.
  - b. 남한과 북한의 참여는 필수적이다. 현재 남과 북은 완전하게 서로를 승인하지 않지만, 상호 승인하지 않는 적대국이라 하더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c. 유엔 참전국이나 중국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. 그들 대부분은 이미 전쟁 당사국들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왔다.

이 브리프는 국제 페미니스트 캠페인, ‘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전쟁 종식, 코리아 피스 나우!’ (Korea Peace Now!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)가 2021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 “평화로 가는 길: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”의 “제1장: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” 영문 브리프를 번역한 것이다. 영문 브리프와 보고서는 [KoreaPeaceNow.org](http://KoreaPeaceNow.org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Women Mobilizing  
to End the War  
KOREA PEACE NOW